

李舜臣龜船(1592)의 鐵裝甲과 慶尙左水使의 鱗甲記錄(1748)에 대한 註釋

朴 惠 一

서울대학교 工科大学 原子核工學科

Comments on the “Scale-armour-clad” Record(1748) in Connection with the Iron-armour-clad of Admiral Yi Sun-sin’s Turtle - boats(1592)

BAK Hae-iLL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connection with the specific expression “scale-armour-clad[鱗甲]” appeared in an old document which was recently found in Chölla Province, the present review reveals the realistic features of the iron-armour-clad for the combat turtle-boats, based on the steady approach of the author's former works. This documentary record concerning turtle-boats has been confirmed as a draft (or copy) for the memorials to the court written by the *Kyöngsang Left Navy Commander* in 1748, i.e., almost 150 years after the Admiral Yi Sun-sin's death, and 47 years before the edi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Yi Ch'ungmu-gong* (1795).

In the memorials to the court, the importance of tactical role of turtle-boats is repeatedly emphasized, and the necessity of the replacement of conventional board-roofed vessels by turtle-boats is strongly proposed appreciating Admiral Yi Sun-Sin's merits of ultimate victory by use of turtle-boats. Also, the “scale-armour-clad” turtle-boat is well likened to an armoured war horse dashing into enemies.

The most important phrase in the record for the present review is a part of explanation for the roof-deck shielding.—It reads “...The so-called turtle-boat is roofed with planking without any turret, and then covered additionally with the scale-armour-clad” [...所謂龜船則不以爲樓以板爲蓋仍作鱗甲]. Next, the scale-armoured roof-deck would be properly studded with iron-spikes as in Admiral Yi Sun-sin's turtle-boats. Then, what is the scale made of? The answer will be iron, i.e., iron-scale. Originally the letters 鱗 and 甲 mean “scale” and “armour”, respectively, and the word 鱗甲 has meanings of Crustacea, hard crustacean shield, or scale-like hard shell. So it has been used to term the armour with metal scales. The expressive terms hereon would correspond to the iron-armour-clad, i.e., forged thin iron-plates. Because, the only fireproof hard cover available for the turtle's back at that time must have been

* 1985년 8월 30일 접수; 1985년 11월 30일 게재 결정.

thin iron sheets. The shape of the unit iron-plate-scale may be rectangular (or hexagonal with proper dimensions). It is well known that the unique patterns of iron-armour-clads in the form of scale-plating on thick planking doors exist at wall gates built in the early periods of the Chosŏn dynasty. This offers a reliable model concept to realize such an expression used in the above-mentioned record. The draft for the memorials written by a naval commander identified as Yi Ŏn-sŏp offers the first written evidence for the iron-armour-clad of the turtle-boats.

I. 序 言

筆者는 李舜臣龜船의 鐵裝甲에 關連하여 그 意義와 本質의인 樣式에 對한 問題를 慎重하게 논의하여 왔다.¹⁾ 우선 口傳의 鐵甲傳說의 成立에 對하여 그 妥當性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것은 口傳이 歷史上的 眞實의 핵심을 품고 있는지의 여부를 立證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記錄의 史料의 有無는 歷史를 연구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러한 史料의 存在의 양상이 매우 偶然的인 경우일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歷史의 자료의 전송과 보존의 着實性은 그 國家와 民族性에도 깊은 關係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李舜臣龜船에 關하여는 비록 鐵甲의 問題 뿐만 아니라, 龜船의 實用的 傳承의 退化와 함께 그에 對한 技術的 史料의 전송도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鐵甲龜船에 關한 壬辰亂 당시의 倭側記錄이 日本에 보존되어 있어 그 記錄史料에 對한 外的・內的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편 都城 및 山城에 상존하고 있는 鐵甲문작의 예는 朝鮮時代의 공통된 鐵甲施工의 類例로서, 그 時代에 對한 하나의 技術的인 原型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鐵甲說에 對한 직觀적인 心證뿐만이 아니라 龜船鐵甲 자체에 對한 施工樣式 상의 模型概念을 제공하는 귀중한 遺物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내용에 對하여는 앞서 발표된 논고를 參照하여 주기 바란다.

1985 年 5 月 8 일자 「한국일보」에 丁薰기자의 이름으로 소위 龜船에 對한 「鱗甲」기록의 古文書가 소개된 바 있다. 文脈으로 보아 이 記錄에서 사용되고 있는 「鱗甲」의 表現이 龜船 背甲板에 장착한 鐵裝甲에 該當됨을 直感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나타나 있는 국내의 古文書로서 — 비록 直接表現은 아니나 — 龜船의 鐵裝甲을 뜻하는 내용이 기술된 것은 이 「鱗甲記錄」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文書 자체는 李舜臣龜船과 同時代의 기록이 아니라, 李舜臣의 歿後 150 年이나 경과한 後代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記錄이 그대로 李舜臣龜船에 對한 一次的 史料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史料에 對한 충분한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다. 本稿의 목적은 이 後代의 鱗甲記錄이 李舜臣龜船과는 과연 어떠한 歷史的 必然性으로 關連되어 있는가를 논의하는 데 있다.

II. 鱗甲記錄의 原文에 對한 註釋

原文의 確定을 위하여 우선 文書의 종류와 來歷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이것은 狀啓의 내용이다. 아뢰는 날자가 「聞 乾隆十三年九月二十九日」, 아뢰는 사람이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〇〇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48 年 즉 英祖 24 年, 당시의 慶尙左水使에 의하여 작성된 狀啓草稿임이 확실하다. 文章에 訂正한 곳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관용으로 정서한 筆寫本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

1) BAK Hae-iLL, "A Short Note on the Iron-clad Turtle-boats of Admiral Yi Sun-Sin," *Korea Journal*, Vol. 17, No. 1, January 1977; 朴惠一, "李舜臣龜船의 鐵裝甲과 李朝鐵甲의 現存原型과의 對比",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1 권 제 1 호, 1979; 朴惠一, "李舜臣龜船의 鐵裝甲에 對한 補遺의 註釋",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4 권 제 1 호, 1982.

다. 여하간 이 記錄은 「備局」(備邊司)에 제출한 狀啓와 同一한 內容의 文書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引用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慶尙左水使 「李○○」은 李彥燮으로 밝혀졌다고 한다.²⁾ 한편, 이 文書가 아직까지 237년간 보존되어 온 來歷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단지 현재의 소장자가 全南 潭陽邑의 孫順敏씨라는 것 뿐이다.……

다음은 이 慶尙左水使의 狀啓가 어떠한 目的으로 무엇을 아뢰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龜船에 대한 建議文인 것이다. 즉 龜船과 樓船(板屋船)³⁾을 비교하여 龜船이 戰術적으로 뛰어난 것을 거듭 지적하고, 또한 李忠武公의 壬辰亂 때의 공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樓船을 龜船으로 代置할 것을 극구 주청하고 있다. 龜船에 관계되는 주요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a) 『鱗甲으로 덮개를 하고, 그 안을 넓혔으며, 굵은 나무로 가슴을 꾸미고, 가파르고 뾰족하여 가볍고 날레니, 외양은 신통한 거북이 물 위를 달러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樓船과 비교한다면 그 빠르고 둔함이 하늘과 땅의 판이함으로나 비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鱗甲이 있어서 矢石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軍士와 기계(무기)를 갖추어서 재주를 떨치며 부딘쳐 나아감에, 빠르기가 육군의 甲馬(갑주를 입힌 軍馬)와 같사오니, 그것으로 선봉을 삼아 파도가 도도한 가운데로 달리어 공격하며 나는 듯이 쳐들어 간다면 이것은 실로 막강한 利器이온 바, 水軍이 밟는 바는 오로지 이 戰艦인데,……』(鱗甲爲蓋以廣其內曲木粧首峭尖輕銳外似神龜之走水比之樓船 其疾其鈍判若霄壤分叱不喻上有 鱗甲而不畏矢石中藏軍械而發藝衝突疾若 陸軍之甲馬是白去乎以此而作先鋒馳肩飛突於海波瀾蟲之間此實莫強之利哭是自乎所舟師所恃惟是戰艦……)

(b) 『이른바 龜船은 누각(당루)을 만들지 않고, 판(板)으로써 덮개(背甲板)를 하고 (그 위에) 거듭(級) 鱗甲을 하였고, 머리는 급하고 뾰족하게 만들었으며, 굵은 나무로 가슴을 하였으니 형상이 거북이 엮드려 있는 것과 같으며, 軍兵과 무기를 모두 그 속에 갖추면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는 矢石을 피할 수 있어 砲를 쏘는 군졸이 몸을 숨기고 재주를 부리며, 노젓는 군사가 노(櫓)를 젓는 데 편하여 나아가고 물리가고를 뜻대로 할 수 있어 바람을 맞아 물을 가슴에 빠르기가 날뎨 말과 같사온 바,……』(所謂龜船則不以爲樓以板爲蓋仍作鱗甲頭製峭尖 曲木爲胸狀如龜伏而軍兵戎器皆藏其中 外不見內內避矢石射砲之卒 隱身用藝能櫓之軍便於搖櫓進慾退惟意所使衝風決水疾如快馬是自乎所……)

(c) 『臣이 바다에서 배를 부렸을 때(함대연습을 하였을 때), 水營과 각 진(鎭) 소속의 戰船들을 출진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빠르고 둔한 상황을 시험하여 보았는데, 배가 나아가고 물리날 경우를 유의하여 본 즉, 樓船이 둔하여 龜船에 뒤지고, 龜船의 빠름이 樓船을 크게 앞서니, 그 격차가 天淵의 差와 같사온 바,……』(臣於水操時營與各鎭戰船之當其赴陣也 試看其疾鈍之狀留意於進退之際則樓船之鈍後於龜船龜船之疾先於樓船者大相天淵是自乎所……)

(d) 『오호라! 저 戰亂(壬辰倭亂)의 때에 忠武公 李舜臣께서 왜구를 맞아 순식간에 충성으로 분발 격려하여 상담의 고통으로 진력하매, 龜船을 처음 만들어 용감하게 승리하였으니, 후세의 변란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었읍니다. (忠武公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참으로 이른바 兵法을 아는 뛰어난 장수였사온데, 혹시 사변이 일어나면 걱정없이 나아가 陣에 임하여 흉폭한 적을 다스림에 있어, 빠르게 나아가 부딪쳐 쳐들어 감에 忠武公이 만드신 龜船의 전략에 부합되어야 할 것인 즉, 陣에 임하여 적을 무찌르는 勇氣가 비록 忠武公의 싸우던 반드시 승리하는 지혜로움과는 같지 못하다 하더라도, 외방의 진을 굳게 지키는 도리에 있어서는 결코 빠름(疾)을 버리고 둔(鈍)함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읍니다.』(噫龍蛇搶攘之日忠武公臣李當倭寇呼吸之間忠奮激動痛在常膽 始製龜船勇敢制勝以爲後世制變之道其 始其終眞所謂知兵之良將是白如乎脫有事變出於不慮則臨陣禦暴疾先衝突 必符於忠武公制龜之略而臨陣制敵之勇雖不如忠武公決勝之智在藩 鎮固守之道決不可捨

2) 書誌학자 李鍾學씨에 의하여 「李○○」은 1747년 慶尙左水使로 부임한 李彥燮으로 확인되었다(「한국일보」, 1985년 5월 8일자 丁薰기자 보도).

3) 狀啓 本文 中에 「所謂樓船則板上作樓」라는 설명이 있다. 「樓」는 적을 정찰하며 지휘하기 위하여 甲板 위에 지어진 다락 모양의 건물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 「樓船」이라 함은 層樓를 올린 큰 배가 아니라 「板屋船」의 뜻으로 해석된다.

疾而取鈍是白如乎)

狀啓는 위의 句節 외에도 같은 趣旨의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끝으로 樓龜 兩船의 제도를 별지에 도면으로 그려 備邊司로 올린다고 쓰고, 「龜船可造之請」에 대한 허가의 처분이 조속히 내려질 것을 강력하게 주청하고 있다. 위 문장의 문맥 속에는 (당시로부터) 150년 전의 李舜臣과, 또 그의 創作龜船의 열이 생생하게 부활되어 있다. 이 慶尙左水使의 狀啓는 鐵甲에 대한 언급이 없는 「李忠武公全書」(1795)의 出版보다 47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여하간 (a), (b) 및 (c)의 기록내용으로부터 이 狀啓가 씌어진 1748년(英祖 24년)에 「鱗甲記錄」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은 實戰用 龜船이 慶尙左水營에 실제로 存在하였음을 確認한 셈이다. 또한 責任感이 왕성한 後代의 한 水使가 자신이 비록 忠武公의 지혜로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만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것임을 아뢰는 대목은 심금을 울리듯 感動的이다(d).

여기서 龜船鐵甲에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b)項의 밑줄 친 句節이다. 이 句節에 대한 原文부분을 第1圖에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이 句節의 意味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所謂龜船」의 「所謂(이른바)」는 바로 李舜臣龜船으로부터 그 特徵이 由來된 바로 그러한 龜船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樓(망루)를 만들지 않고, 木板으로 덮개(背甲板)를 하고, 그 위에 거듭(仍) 「鱗甲」을 입혔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鱗甲」은 무엇인가? 이것은 (낯)쇠비늘을 연결하여 만든 갑옷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낱말이기도 하다.⁴⁾ 「鱗」字는 비늘을, 「甲」은 甲冑를 각각 의미하며, 「鱗甲」은 甲殼類, 甲殼 또는 비늘모양의 군은 접매기를 뜻하는 것이다. 즉 鱗甲은 비늘모양의 갑옷이라는 뜻에 해당된다. 그러면 또 「비늘」은 무엇으로 만든 것인가? 木板보다 견고하고 耐火性을 갖춘 당시의 재료로서는 鐵 이외는 있을 수 없다. 즉 쇠비늘인 것이다. 대장간에서 鍛造된 얇은 鐵葉이다. 두께는 2~3mm 정도. 또한 「비늘 린」의 「鱗」字는 비늘모양으로 포개 붙이는 鐵裝甲의 施工樣式을 잘 암시해 주고 있다. 이전에 발표된 筆者의 모형概念(그림)을 第2圖에 전제하였다.

Ⅲ. 李舜臣龜船과 鱗甲記錄의 龜船像

앞 節에서는 일단 鱗甲記錄의 주요내용과 그 意義를 살펴 보는 동시에 鱗甲의 뜻을 확정하였다. 즉 樓船(板屋船)과 비교하였을 때 龜船의 장점을 다시 確認할 수 있었고, 또 李舜臣에서 由來된 龜船의 戰術이 繼承되어야 할 必要性이 강조되어 있음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慶尙左水使(李彥燮)의 狀啓 속에는 李舜臣과 그의 創作龜船의 精神이 역력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龜船의 制度가 李舜臣 이후 그야말로 實用的으로 連綿하게 계승되었던 것은 아니다.

즉 亂後 8년, 운영난으로 그 實用性이 저하된 소위 非戰時의 龜船은 「……各營各置一隻不爲加造」로 制度의 形式만이 남아 있는 형편이었다. 또 亂後 17년(光海君 7年)에는 巡檢使 權盼이 水軍을 巡訪하여 소위 李舜臣이 정한 바의 戰船의 옛 制度를 勘定하여 舊制의 부활을 도모하였으나, 時期的으로 늦은 탓도 있어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肅宗期에 이르러 또 다시 舊定節目(李舜臣의 制度에 대한)에 準하여 改善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再論하게 된다. 「……舊制不可輕改」(옛 制度를 가변이 바꾸어서는 안된다)의 뜻이 고조되어 權盼의 勘定節目(1615)이 다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문제는 龜船에 관한 舊制는 그 節目 속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龜船에 대한 技術的인 復元이 이 무렵에 성취되었을 가능성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⁵⁾ 洪以燮교수가 그의 저서 「朝鮮科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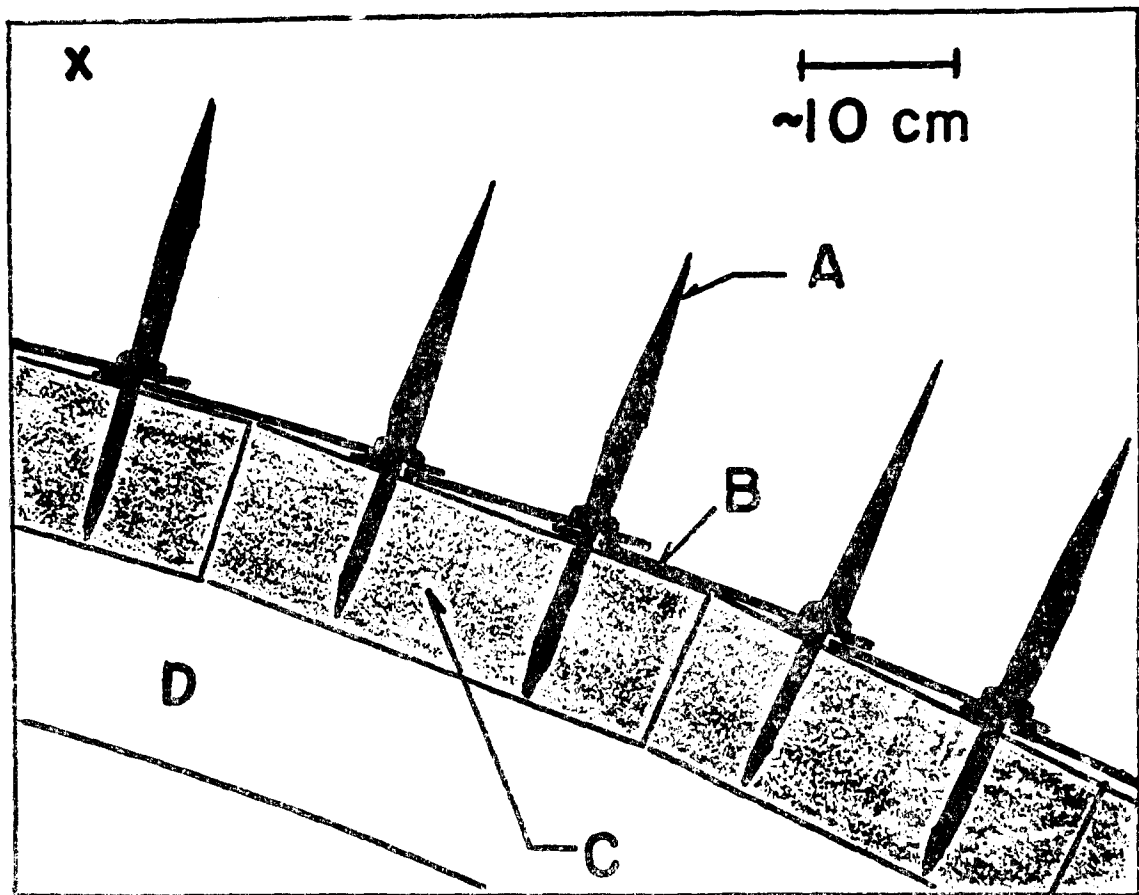
4) 李美娜, 「갑옷에 대한 연구」,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碩士論文, 1982 參照.

5) 朴惠一, 1982의 Ⅱ. 李舜臣龜船, 그리고 肅宗 - 正祖期의 龜船像 參照.

且論其形則有樓船焉軍兵器械之藏容體操
 甚異同而所謂樓船則板上作樓頭面廣濶橫板作
 上下體制儼若巨屋而軍兵旗幟列立其上無異陸
 地陳之制是自違平時繫泊則覆之細椽草苫為
 而已所謂龜船則不以為樓以板為蓋仍作鱗甲頭
 骨狀如龜伏而軍兵器皆藏其中外不見內內避
 隱身用藝能櫓之軍便於搖櫓欲進欲退惟意
 疾如快馬是為舟所臣於水操時營與谷鎮戰船之
 者其疾鈍之狀留意於進退之際則樓船之鈍後於
 疾先於樓船者大相天淵矣而頭濶之樓船泛洋

Fig. 1. A part of the draft for the memorials to the court written by the Kyongsang Left Navy Commander in 1748

The dotted phrase is read as "The so-called turtle-boat is roofed with planking without any turret, and then covered additionally with the scale-armour-clad on."



A: IRON-SPIKE (Weight: 200-300gm)

B: IRON-PLATE (Thickness: 2-3mm)

C: PLANKING (Thickness: 10-15cm)

D: ARCHED BEAM

Fig. 2. Conceptive sketch for the roof-deck structure of Admiral Yi Sun-sin's combat turtle-boats
(From the author's previous work, *Korea Journal*, Vol. 17, No. 1, January 1977)

The forged thin iron-plate(B) corresponds to the expression "iron-scale" having the rectangular or hexagonal shape with proper dimensions available from the blacksmith at that time. For example, rectangular scale plates 21cm×57cm each were used at the iron-clad door of the South Gate of Seoul.

史」(1946)에서 「……壬辰倭亂을契機로 鐵甲船으로서의 龜船은 李舜臣의 손에 實用化되었다. 그러나 李舜臣의 失脚 또 別世 後에는 그것의 實用이 低落되고 만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例外的이라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鱗甲記錄의 龜船은 당시부터 150년 전의 李舜臣 龜船으로부터 — 變遷 속에서도 그 象徵인 特徵인 鐵甲과 机动성을 간직한 채 — 그 代를 이어 온 바로 그러한 存在로 간주하여 마땅할 것 같다. 再言한다면, 原型에 대한 尺度上的 變遷은 있었

을망정 李舜臣龜船의 象徵인 傳承으로서의 鐵甲龜船이 後代의 어느 곳에서나마 實現되어 있었음을 이 狀啓記錄은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위 제도적 또는 체제적인 記錄이 지니고 있는 一種의 虛構性을 보는 듯하다. 여하간 이른바 “scissors-and-paste history”의 視程 속에서는 龜船의 鐵甲像이 인식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IV. 餘 言

鐵甲龜船에 관련하여 英祖 때의 한 狀啓寫本에 접하게 되어 筆者 나름의 意見을 추려 註釋으로 삼았다. 後代의 變遷 또는 退化된 龜船像에서 李舜臣龜船의 얼을 이은 鐵甲龜船이 어떤 水營에 存在하였다는 事實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간곡한 狀啓를 접수한 朝廷에서 과연 어떠한 措置를 취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時期의 龜船像에 대하여는, 특히 그 退化相을 지적하고 있는 朴文秀(嶺南 均稅使)의 奏上이 있다. 즉, 『臣 戰船龜船의 制를 詳見하오에, 戰船은 改造時에 그 體가 漸次 길고, 결코 運營 어렵나이다. 龜船에 미쳐서는 當初의 體制 艤衝과 같아오고, 上에 厚板을 덮어 矢石을 避하오니 臣 李舜臣의 所記를 보오에 龜船의 左右 各 六銃穴이 열림에 今 八穴을 열었사오니, 龜船은 前에 比하여 過大하나이다. 또 아뢰옵자니, 改造 아니치 못할 바를……』(英宗大王實錄 卷之 七十三 27年(1751) 2月 己丑日條). 이것은 鱗甲記錄의 狀啓 주청이 있은 후 불과 3년 이내에 王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장소도 嶺南이니, 均稅使 朴文秀가 가 본 데가 慶尙左水營인지 右水營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간 左水使가 주청한 바의 板屋船에 비하여 판이하게 예리하고 날랜, 이른바 艤衝에 명실 상부하는 龜船은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朴文秀가 『李舜臣의 所記를 보오에 龜船의 左右 各 六銃穴이 열림에……』(臣得見忠武公李舜臣所記則龜船左右各開六銃穴……)라고 한 것은 바로 正郎 李芬(李舜臣의 조카)의 『行錄』 속에 보이는 『左右에 각각 여섯개의 銃穴이 있다』(左右各有六穴)라는 내용을 引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砲穴 2개를 증설하려던, 적어도 船體의 길이가 3m 정도 길어진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戰船龜船의 「漸次高大之說」이 이미 肅宗朝에서 누차 거론된 바 있는 것으로 보아⁶⁾ 변천과정의 일환으로 수긍될 수 있을 것 같다. 요컨대 慶尙左水使가 주청하고 있는 바와 같은 뛰어난 性能의 龜船이 朝廷에서 어떻게 認識되었으며, 또 그 간곡한 狀啓에 대하여 얼마나 積極의으로 조치, 지원하였는지가 무척 궁금한 일이다. 本論考의 目的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다.

謝 辭

本稿의 作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 本學會의 朴益洙 前會長님께 감사드립니다. 鱗甲에 관하여 귀중한 助言을 주신 文化財研究所 保存科學研究室의 金東賢室長님과 갑옷에 대한 論文을 보내 주신 李康七教授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걸같이 筆者에게 유익한 의견을 보내 주신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의 鄭基亨教授님과 洪相憲教授님, 또 文獻의 해석을 도와 주신 同大學校 大學院의 李憲周씨에게 심심한 사의를 포함합니다.

6) 5)와 같음.